

kiri Weekly

2013.10.14 제254호

이슈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글로벌 이슈

IMF, 신흥국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금융시장 주요지표

kiri 보험연구원
Korea Insurance Research Institute

이슈와 포커스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최근 개정 논의와 시사점

장동식 수석연구원

요약

- 유럽의 새로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인 솔벤시 2(Solvency 2)의 경우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 등에 따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인 SCR 비율이 변동됨.
 -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는 자산 감소에 따라 SCR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그리고 SCR 비율의 하락에 따른 자본확충 압력에 보험회사는 장기 또는 저신용등급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 또는 고신용등급 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대응할 수 있음.
 - 이러한 대응은 보험회사의 전통적 기능인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 약화로 이어짐.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한 도입 방안이 최근 제안되고, 평가됨.
 - 매칭조정은 상품특성을 반영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해당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통상적인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의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SCR 비율 변동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매칭조정 방안인 고전적 매칭조정만 솔벤시 2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평가함.
 -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장기투자전략을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모든 보험부채에 적용하도록 하여 급격한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에 인한 SCR 비율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 이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영구적이고, 예측가능한 새로운 장치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평가함.

- 아직까지 최종 방안이 도출되지 않았지만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보험산업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시사점을 주고 있음.
 -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역할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감독당국 역시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을 보험부채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를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국제적 적합성을 지향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과 관련된 유럽연합 내 논의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1. 검토배경



■ 솔벤시 2의 SCR 비율은 회사채의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따라 변동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 솔벤시 2는 자산과 부채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총재무제표 방식(total balance sheet approach)¹⁾을 채택하고 있으나 평가금리 측면에서는 자산과 부채에 다른 접근법을 적용
 - 자산평가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한 평가금리를 적용하고, 부채평가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금리(무위험이자율)를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변화는 자산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보험부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그 결과,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는 자산 감소에 따른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이하 SCR 비율)의 하락으로 이어짐.
- 우리나라의 경우 자산은 공정가치로,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하고 있어 비유동성 프리미엄의 증가는 솔벤시 2처럼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표 1> 참조)

〈표 1〉 솔벤시 2의 자산, 부채 평가 방식

구분	솔벤시 2	비고(우리나라 RBC)	
자산	공정가치평가를 기본으로 하며, 현행 회계 기준과 큰 차이가 없음	현행 회계기준을 준용하여 공정가치 평가	
	단기매매	공정가치평가	
	매도가능	공정가치평가	
	만기보유	공정가치평가	취득원가 평가
부채	공정가치평가를 기본으로 최선추정치와 리스크 마진의 합으로 산출	현행 회계기준으로 준용하여 원가 평가	
	할인율	무위험 이자율 기간구조	예정이자율
	리스크 마진	사업영역(LOB)별로 계산	계산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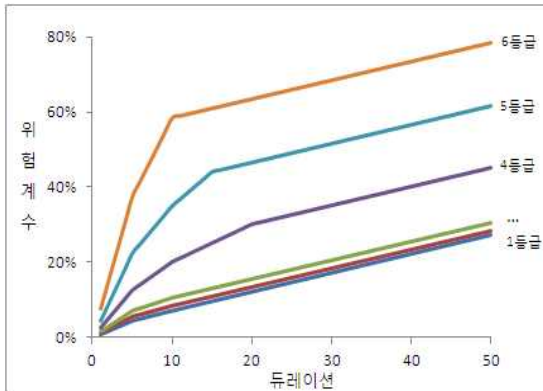
자료: 허창언(2012. 10),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정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27호, p. 11.

1) 총 대차대조표 방식은 자산만을 공정가치(시가)로 평가하는 IFRS의 공시 재무제표와 구분하기 위하여 솔벤시 2 및 국제보험감독자협회의 보험감독핵심원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임. 우리나라 위험 중심 자기자본(RBC)의 경우 자산은 공정가치로 평가되고, 보험부채는 원가로 평가됨. 허창언(2012. 10), 「보험회사 지급여력제도 정책방향」, 대한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 통권 제527호, p. 10 참조.

■ 또한 솔벤시 2의 SCR 비율은 자산포트폴리오의 인위적 조정으로도 조절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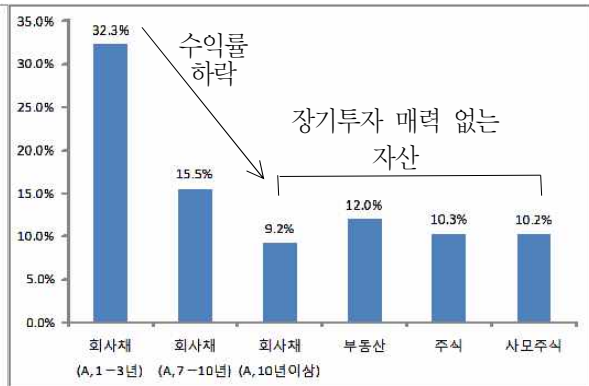
- 현행 솔벤시 2는 듀레이션이 긴 자산일수록, 신용도가 낮은 자산일수록 큰 위험계수를 적용
 - <그림 1>을 보면 1등급 50 듀레이션 자산은 1등급 10 듀레이션인 자산보다 큰 위험계수가 적용되고, 20 듀레이션 6등급 자산은 20 듀레이션 6등급 자산보다 큰 위험계수가 적용
- 또한 솔벤시 2는 듀레이션이 길 자산일수록 자본수익률이 낮아짐.
 - <그림 2>를 보면 듀레이션에 따른 위험계수 차이로 인해 장기 회사채(A 신용등급, 만기 10년 이상)의 자본수익률이 중기 회사채(A 신용등급, 만기 7~10년)보다 낮음.
- 보험회사는 이를 활용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요구자본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장기자산을 단기자산으로 전환하여 요구자본 규모를 줄일 수 있음.

<그림 1> 신용등급별 듀레이션과 위험계수 관계



자료: EIOPA(2013, 6), "Technical Specification on the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Part I," p. 148.

<그림 2> 자산유형별 자본수익률(return on capital)



주: 자본수익률은 요구자본 대비 무위험이자율 초과 스프레드 비율을 말함.

자료: IE(Insurance Europe, 2013, 6), "Funding the future: insurers' role of institutional investors", p. 34.

■ 솔벤시 2의 이러한 특징은 보험소비자, 보험산업 및 장기자본시장에 의도와는 다른 영향을 미침.

- 이러한 특징은 보험회사가 장기보증 특성을 지닌 상품을 판매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인상하는 전략을 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또한 보험회사가 비유동성 프리미엄 증가 위험에 노출된 장기자산 또는 저 신용등급 자산을 매각하고, 단기자산 또는 고 신용등급 자산을 매입하는 전략을 취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보험회사의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은 SCR 비율의 상승을 가져오지만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약화시킴.
 - 또한 보험회사가 향후 매각자산과 동일한 수익성을 지닌 자산을 매입하지 못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화가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칭조정 (matching adjustment) 제도와 경기대응 프리미엄(counter-cyclical premium)²⁾ 제도가 유럽연합 내 기구에서 검토됨.

-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금융위기 직후 매칭조정 제도와 경기대응 프리미엄 제도를 검토하였음.
- 2013년 상반기에 유럽보험연금감독청(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은 이에 대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함.

■ 본 보고서는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설명하고,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평가결과를 살펴보고자 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보험부채 할인을 결정방법(예, 보외법), 경과조치 등도 함께 검토하였음.
- 그러나 본 보고서는 장기투자 기능 유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있는 매칭조정과 경기대응 프리미엄만 설명함.

2. 솔벤시 2의 보험부채 평가관련 주요 논의 : 매칭조정 및 경기대응 프리미엄



가. 매칭조정

■ 매칭조정은 보험부채와 매칭된 자산(이하 매칭자산)과 해당 보험부채의 매칭정도를 감안하여 조정된 평가금리를 보험부채평가에 적용하여 매칭자산 변동이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임.

- 보험회사는 상품특성을 감안하여 자산과 부채를 종합적으로 관리(이하 자산부채종합관리)하고 있다면 아래의 상황에서는 강제 매각 손실(losses on forced sales) 위험³⁾에 노출되지 않음.
 - 보험부채가 예측가능하고, 매칭자산의 현금흐름이 해당 보험부채의 현금흐름과 일치하는 경우 (예, 연금)

2)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특별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자산 매각을 회피하기 위해 보험부채에 높은 평가금리를 적용하여 책임준비금 감소 및 가용자본 증가시키는 비상시 단기부채 경감방법임. 솔벤시 2의 제5차 계량영향평가(QIS 5)는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비 유동성 프리미엄 (illiquidity premium)으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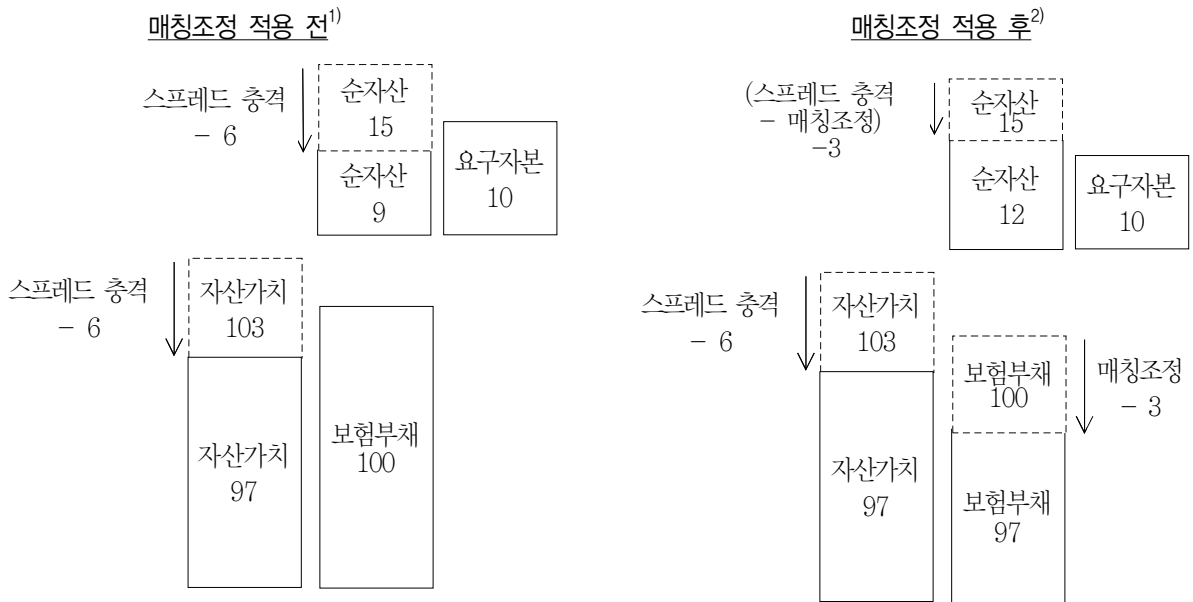
3) 이는 예상 못한 보험금 지급(예, 해약환급금)을 위하여 만기 보유 자산을 매각하여 자산의 손실을 인식하는 상황을 말함.

- 보험회사가 강제 매각 손실 위험을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경우⁴⁾
- 매칭조정은 이를 감안한 평가금리(무위험이자율+매칭조정)를 보험부채평가에 적용하여 매칭자산의 스프레드 충격(비유동성 프리미엄 증가)이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메커니즘임.

■ 매칭조정 효과는 매칭자산, 보험부채, 순자산, SCR 비율 등에 스프레드 충격이 미치는 영향을 예시한 <그림 3>에서 살펴볼 수 있음.

- 매칭조정 전에는 스프레드 충격이 매칭자산과 순자산에만 영향을 미침.
 - 이는 매칭자산에 반영된 스프레드 충격이 보험부채의 평가금리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임.
- 매칭조정 후에는 스프레드 충격이 매칭자산, 보험부채 및 순자산에 영향을 미침.
 - 이는 보험부채평가에 매칭자산과 해당 보험부채의 매칭정도가 평가금리에 반영되었기 때문임.

<그림 3> 매칭조정 효과 예시



주: 1) 스프레드 충격(충격 전 자산가치 103, 충격 후 자산가치 97)이 보험부채에서 흡수되지 않음을 가정

2) 스프레드 충격(충격 전 자산가치 103, 충격 후 자산가치 97)이 보험부채에서 일부 흡수(충격 전 보험부채 100, 충격 후 보험부채 97)됨을 가정

자료: EIOPA(2013. 6),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Term Guarantees Assessment", p. 77.

4) 예, 시장가치 조정 조항(market value adjustment clauses).

■ 이러한 효과를 지닌 매칭조정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보험회사가 자율적으로 매칭조정 적용여부와 적용수준을 결정하는 운영방안을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 제안함.

- 보험회사는 구분계리(또는 특별계정 처리)하는 보험부채에 매칭조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독당국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함.
- 보험회사는 매칭조정을 적용한 경우 매칭조정을 적용한 사실과 적용한 효과를 공시하여야 함.

〈표 2〉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매칭조정(안)

구분	내용
목적	- 장기투자자 기능 유지
가용자본	- 보험부채(최선추정치) 변화에 따른 가용자본 증감
적용대상	- 장기보증 보험부채(부채 요건 및 자산 요건 충족)
적용수준	- 보험부채와 매칭자산의 매칭 수준 - 매칭 수준 회사 결정
적용기간	- 항상 적용(적용에서 미적용으로 전환: 불가)
기타	- 구분계리(또는 특별계정), 감독당국 승인, 적용 효과 공시

자료: Theresa Chew, Michael Klueggens and Colin Murray(2013. 1), "EIOPA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LTGA): Sc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

■ 그리고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매칭조정 세부방안으로 고전적 매칭조정(classical matching adjustment)과 확장 매칭조정(extended matching adjustment)을 제안함.

- 고전적 매칭조정은 신용등급(BBB등급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매칭된 예측가능한 보험부채에 적용하는 매칭조정임.
 - 매칭자산은 강제매각 손실 위험에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보험부채는 보험계약자 옵션 및 장래 보험료 납입 등의 현금흐름을 변동시키는 요인을 지니지 않아야 함.
- 확장 매칭조정은 완화된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으로 매칭된 보험부채에 적용하는 매칭조정임.
 - 매칭자산은 완화된 신용등급(3등급 이상) 요건 등을 충족하고, 보험부채 역시 완화된 현금흐름 요건(예, 계약자 옵션 인정)을 충족하여야 함.

〈표 3〉 매칭조정 세부방안 및 적용 요건

구분		고전적 매칭조정	확장 매칭조정
적용 요건	현금흐름 매칭요건 ¹⁾	- 15% 미만	
	보험부채 요건	- 장수위험만 지닌 상품 ²⁾ - 장래 보험료 납입 없음 - 계약자옵션(예: 해약) 없음	-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 - 계약자옵션도 인정
	매칭자산 요건	- BBB 등급 이상 채권(BBB 등급: 최대 33.3 %)	
효과(할인율)		- 자산운용수익률에 가까운 금리	- 전통적 매칭조정보다 소폭 조정

주: 1) 부족한 현금흐름 현재 가치(the discounted value of cash-flow shortfalls).

2) 예, 연금개시 계약.

자료: 荻原 邦男(2013. 7. 23), "EU ソルベンシーⅡ の動向:長期保証契約影響度調査(LTGA)の結果レポートを中心に", ニッセイ 基礎研究所 focus, p. 3.

■ 이와 같은 매칭조정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아래의 의견을 종합하여 고전적 매칭조정만 솔벤시 2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3대 기구⁵⁾에 권고함.⁶⁾

- 확장 매칭조정은 보험계약자 보호, 보험회사 간 경쟁 등을 저해하는 요인을 지니고 있음.
 - 확장 매칭조정은 자산 매각 없는 보험부채 이행을 보증하지 못하며, 저 신용등급 자산에 투자한 보험회사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음.
- 고전적 매칭조정 역시 다음과 같은 단점을 지니고 있지만 순자산 증감과 재무건전성 비율 변동을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제도적 장치임.
 - 고전적 매칭조정은 확정수익형 자산(assets with fixed return)을 보유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또한 자산 요건(예, BBB 등급 자산 최대 33%) 충족을 위한 자산 매각을 유발할 수 있음.

나. 경기대응 프리미엄

■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동을 감안한 평가금리를 보험부채에 적용하여 스프레드 충격이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는 방안임.

- 금융위기 시 시장의 비유동성과 급격한 스프레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보험회사의 유동성 부족과 SCR 비율 하락을 초래할 수 있음.
- 이 경우 보험회사는 장기자산을 매각하고 단기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소하고, 아울러 SCR 비율을 높일 수 있음.⁷⁾

5) 3대 기구는 유럽집행위원회·유럽이사회(European Council)·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를 의미함.

6) 매칭조정과 관련하여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사망위험 추가, 신용도 관리 능력, 유럽보험감독청의 역할 확대(예, 조정 한도) 등이 필요하다고 평가함.

- 그런데 이 조정이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징과 장기투자 특징을 감안하지 않은 조정이라면, 이 조정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3대 기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기 시 비유동성 프리미엄 변동을 감안한 평가금리(무위험이자율+경기대응 프리미엄)를 보험부채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함.
 - 즉, 3대 기구는 금융위기와 같은 예외적 시기에만 보험부채에 높은 평가금리를 적용하여 SCR 비율을 높이기 위한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을 억제하고자 함.

■ 이러한 효과를 지닌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 유럽 보험연금감독청이 적용여부와 적용수준을 결정하는 운영방안을 제안함.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대표 포트폴리오(예, 국공채, 회사채)를 분석하여 경기대응 프리미엄 적용 여부와 적용 수준을 결정함.

〈표 4〉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의 경기대응 프리미엄(안)

구분	경기대응 프리미엄	비고(변동균형1))
목적	- 예외적인 신용스프레드 스트레스가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 신용스프레드 스트레스가 SCR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
가용자본	- 보험부채 감소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	- 보험부채 감소에 따른 가용자본 증가
적용대상	- 모든 보험부채 (매칭조정 적용 보험부채 제외)	- 모든 보험부채 (매칭조정 적용 보험부채 제외)
적용수준 ²⁾	- EIOPA이 대표 포트폴리오의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경기대응 프리미엄 수준을 결정	- 회원국 감독당국이 통화 스프레드와 국가 스프레드를 이용하여 적용 수준 결정
적용기간	- EIOPA이 대표 포트폴리오의 비유동성 프리미엄을 감안하여 경기대응 프리미엄 적용 여부를 결정	- 보험회사는 변동균형을 영구적으로 적용함
기타	- 시장위험 모듈 내 하부위험으로 경기대응 프리미엄의 요구자본을 계상 - 보험회사는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적용한 효과를 공시 - 보험회사는 경기대응 프리미엄의 적용 시기와 적용 수준을 예측하지 못함	- 보험회사는 변동균형을 적용한 효과를 공시 - 보험회사는 변동균형 수준을 예측할 수 있음

주: 1)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관련 결과보고서에서 다음과 같은 변동균형자(Volatility Balancer)를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대체하는 방안으로 제안하였으나, 이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함께 제안함.

$$\text{변동균형(Volatility Balancer)} = \{\text{국가 대표 포트폴리오 스프레드} - 2 \times \text{통화 대표 포트폴리오 스프레드}\} \times 20\%$$

2)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의 경우 0, 50, 100 및 250 bps를 경기대응 프리미엄으로 가정함.

자료: Theresa Chew, Michael Klueggens and Colin Murray(2013, 1)의 "EIOPA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 (LTGA): Scope, Methodology and Application"과 EIOPA(2013, 6)의 "Technical Findings on the Long Term Guarantee Assessment"를 참조하여 정리함.

7) 보험회사는 큰 위험계수를 적용받는 장기자산을 매각하고, 적은 위험계수를 적용받는 단기자산을 매입하는 자산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요구자본 규모를 줄일 수 있음.

- 보험회사는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이 제시한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모든 보험부채(매칭조정을 적용한 보험부채 제외)에 적용하고, 그 효과를 공시하여야 함.
- 이와 같은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해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아래의 의견을 종합하여 영구적이고, 예측 가능한 새로운 장치⁸⁾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3대 기구에 제시함.
 - 경기대응 프리미엄은 대부분 보험회사에서 SCR 비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SCR 비율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경기대응 프리미엄 위험에 대한 요구자본이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의한 보험부채 감소 및 가용자본 증가보다 큰 경우 해당 보험회사의 SCR 비율은 경기대응 프리미엄 적용 전보다 낮음.
 - 또한 보험회사가 적용하던 경기대응 프리미엄을 적용하지 않게 되면 이는 일시적으로 보험부채의 증가와 가용자본의 감소를 초래함.

3. 요약 및 시사점



- 결과적으로 3대 기구 및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최근 실시한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에서도 스프레드 충격(또는 비유동성 프리미엄 증가)이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확정하지 못함.⁹⁾
 -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매칭조정에 대해 보험계약자 보호, 경쟁 등을 훼손하지 않는 고전적 매칭조정만 솔벤시 2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3대 기구에 권고함.
 -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영구적이며, 예측가능한 새로운 장치(예, 변동균형자)로 대체하여야 한다고 3대 기구에 권고함.
 - 또한 유럽보험연금감독청은 3대 기구에 SCR 비율의 변동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계속하여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함.
- 그러나 3대 기구의 매칭조정 및 경기대응 프리미엄에 대한 제안들은 스프레드 충격(또는 비유동성 프리미엄 증가)이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 방향을 보여줌.

8) <표 4> 참조.

9) 유럽의회는 장기보증계량영향평가 결과 등을 감안하여 옴니버스 2 지침 제정안에 대한 심의일정을 213년 9월에서 2014년 3월로 변경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솔벤시 2는 보험부채와 매칭된 자산에 스프레드 변화를 감안한 평가금리를 적용하지만, 해당 보험부채에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평가금리를 적용함.
 - 이로 인해 솔벤시 2의 SCR 비율은 스프레드를 급격하게 변화시키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고, 이는 SCR 비율에 의한 감독당국의 의사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감독행위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급격하게 변화되는 스프레드가 SCR 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스프레드 충격을 감안한 평가금리를 보험부채평가에 적용하는 방안이 있음.
- 또한 3대 기구의 제안은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성과 장기투자 특성이 재무건전성 감독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특성을 감안한 자산부채종합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즉, 보험회사는 보험부채의 현금흐름을 감안하여 자산 대부분을 장기투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그런데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성과 장기투자 특성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에 감안되지 않는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따라서 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계속해서 장기투자 기능과 금융시장 안정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자산부채종합관리 특성과 장기투자 특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매칭조정 및 경기대응 프리미엄 등에 대한 논의를 계속 모니터링 하여 국제보험 감독기준 및 국제회계기준에 대한 대응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자산과 부채를 모두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총 대차대조표 방식을 지향하고 있으며, 또한 보험감독에 대한 국제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그리고 유럽 각국 감독당국은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의 각종 회의에서 솔벤시 2의 경험을 각국 감독당국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유럽 각국 보험회사 등은 솔벤시 2의 경험을 토대로 제2단계 보험회계(IFRS Phase 2)관련 검토의견을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제시할 것으로 전망됨.
 - 이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 감독당국은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3대 기구의 논의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kiqi**